

(주)모비젠, 중부 R&D 센터 개소 중부지역 연구 클러스터 연계한 기술역량 강화

- ◆ 중부지역 연구 클러스터 연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부 R&D 센터 오픈
- ◆ 빅데이터를 비롯해 차세대 융합 R&D 연구 공동과제 추진해 나갈 계획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주)모비젠(대표 김태수, 고필주)은 중부지역 소재 연구기관과의 연구 및 기술 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비젠 중부 R&D 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모비젠 중부 R&D 센터는 주요 연구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전시는 각종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소재한 과학기술도시로서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모비젠은 중부 R&D 센터를 통해 대전 소재의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과학연구소(ADD)등과의 연구 협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모비젠은 그동안 중부지역의 주요 연구기관과 다수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과 '실시간 내부자 연쇄연동 탐지 시스템'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모비젠에서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기술을 기반으로 관리자 권한을 가진 내부인력이 특정 시스템을 타겟으로 행하는 악의적인 프로그램 변경과 불법 행위를 최단시간에 탐지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연구원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보안 침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도 빅데이터 및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 연구 개발을 5년째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해 공동 개발을 완료한 'BDaaS(Big Data as a Service)를 위한 협업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된 데이터의 수집/저장/관리 및 분석 환경을 제공하여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에 대한 비용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모비젠과 ETRI가 공동으로 연구한 '국제표준 기반 오픈 데이터 유통 플랫폼 확장

기술'이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오픈 소스 플랫폼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인 DCAT(Data Catalog Vocabulary) 규격에 따라 표현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확장 기술로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 사이트에 적용해 사전 검증된 바 있다.

모비젠 김형근 연구소장은 "중부지역의 주요 연구기관과 모비젠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향후 모비젠은 중부 R&D 센터 설립을 기반으로 대전 및 충청 이남 지역의 연구소들과 활발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빅데이터 분야뿐만 아니라 차세대 융합 R&D 연구과제 또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별첨]-회사소개

(주)모비젠의 역사는 2000년 회사 설립 당시,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대용량 과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고객의 체감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하루에 수 천만 건씩 생성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10 여건의 관련 특허를 포함하여 이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모비젠은 누구나 개발자의 도움 없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및 예측 수요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AI 분야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OSS(Operation Support System, 운용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모비젠이 2008년에 한국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출시한 빅데이터 플랫폼인 '아이리스(IRIS)'는 일일 수천억 건씩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 탐색, 분석 및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토탈 서비스를 성능 저하 없이 제공함으로써, 페타바이트(PB) 수준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고객들이 단시간내에 인사이트를 도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모비젠은 SK텔레콤, LGU+ 등 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SK 브로드밴드, SK 하이닉스, 코레일, 삼성 화재, 금융보안원, 전력연구원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고객들의 비즈니스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본인정보 활용(MyData)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업문의] 모비젠 사업총괄 이세연 부사장 010-4114-9360 sylee@mobigen.com

[PR] 지란지교시큐리티 전략기획부 박지선 대리 010-2766-0657 jspark@jiran.com